

중남미개발은행(CAF), GCF와 인증기본협정(AMA) 체결한 최초 다자개발은행

2016.11.15, 마라케시 - 중남미개발은행(CAF)이 녹색기후기금(GCF)과 인증기본협정(AMA)을 체결한 최초 다자개발은행이 되면서 중남미 지역의 저배출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식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협정에는 루이스 엔리크 베리즈베이사 CAF 수석부총재(Executive Vice President)와 하비에 만자나레스 GCF 사무총장 대행이 서명했다. 인증기본협정은 GCF 자금 사용을 위한 협력의 기본 조건을 담은 핵심문서이다.

서명식에서 만자나레스 사무총장은 “CAF와 파트너십 협정을 최종 마무리하여 기쁘다. 협력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요구 해소, 중남미 저배출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사업 후보군 개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CAF 수석부총재는 “GCF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남미 투자에 GCF와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CAF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본부를 두고 국가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남미 지역 개발 은행이다. CAF의 운영 규모가 크기 때문에 GCF도 중남미 전 지역에서 저배출 기후 회복력 있는 사업 기회 투자 역량을 키울 수 있다. CAF는 대형 직접접근 기구로 2015년 7월 이행기구로 인증 받았다. 중남미 15개 국가 등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특히 기술·재정 부문의 사업 구조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에 힘쓰고 있다.

2016년 6월 GCF 이사회는 칠레 타라파카 지역의 태양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CAF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GCF는 아타카마 태양열 에너지 프로젝트에 4천9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CAF외 다른 기구도 협조용자를 통해 본 사업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증기본협정 서명 인증기구는 총 15개이다.

1. 어큐먼펀드
2. 모로코 농업개발청(ADA)
3. 카리브기후변화센터 (CCCCC)
4. 세네갈 생태감시센터 (CSE)
5. 중남미개발은행(CAF)
6. 남부 아프리카 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7.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EIF)
8.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9. 르완다 천연자원부 (MINIRENA)
10. 케냐 국립환경관리청 (NEMA)
11. 페루환경보호기금 (PROFONANPE)
12.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 (SPREP)
13. 아르헨티나 농촌개발공사 (Unit for Rural Change of Argentina)

[번역]

- 14. 유엔개발계획 (UNDP)
- 15. 세계기상기구 (WMO)

다른 인증기구들도 인증기본협정 마무리 과정에 있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caf-becomes-first-multi-lateral-development-bank-to-sign-agreement-with-gcf?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